

“굴러다니는 공도 조심하라”

시즌 개막 일주일 앞둔 KIA '부상 경계령'

24일 롯데전 공 맞은 김주형 단순 타박상 '안도'

연습경기도 취소하고 감독·선수 긴장감 역력

김기태 감독 “개막이라는 축제 즐기겠다”

굴러다니는 공도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다. 2016시즌 개막까지 이제 7일이 남았다. KIA 타이거즈가 '부상 조심'을 외치며 4월1일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개막이 다가오면서 선수들은 물론 수장 김기태 감독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외야수 오준혁은 “개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떨린다”고 한숨을 쉬었고,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이 예민해지는 시기다. 개막이라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김 감독은 23일 kt전에 앞서 진행된 훈련 시간에는 경기장에 발라드 음악이 흘러나오자 “선수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댄스 음악을 틀어 주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는 등 선수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했다.

개막을 앞두고 가장 강조되는 것은 '부상'이다. KIA는 시범경기 이후 한 차례 연습경기를 소화하려고 했지만, 캠프 연습경기과 시범 경기를 통해 충분히 실전을 소화한데다 괜한 부상이 나올까봐 연습경기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야간 라이브 배팅으로 개막전 마지막 준비를 할 예정이다.

김 감독은 시범경기 마지막 한 주 경기 운영에 대해 “남은 시범경기는 정규 시즌에 맞춰 선발 출전할 선수들이 7이닝 정도를 소화하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지만 초반에 경기 흐름이 기운 23일 kt전에서는 일찍 선수들을 교체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기에서 자칫하다 부상이 나올 수도 있어서 주전 선수들을 일찍 벤치로 불러들였다. 전날 파울 타구에 맞은 김원섭 등은 아예 스타팅 라인업에서 제외하기도 했었다.

'부상'은 KIA에게는 지긋지긋한 단어다. 주전 선수들의 릴레이 부상으로 매년 어렵게 시즌을 운영해왔고, 얇은 선수층 탓에 부상의 여파가 컸다. 특별 관심 선수도 많다. 마운드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광정철과 한기주도 오랜 시간과 부상과 씨름했던 만큼 노심조사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이다. 몇 안 되는 확실한 주전 김주찬도 부상과 때려야 될 수 없는 단골 재활군이다. 시범경기에서도 공에 손목을 맞아 며칠 쉬어야



프로야구 개막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KIA 선수단에 부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사진은 지난 12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손에 공을 맞은 김주찬이 아이싱을 하고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도 했다. '대형 유격수'로 주목받고 있는 김주형에게도 '부상조심'이 언급되고 있다. 김주형은 2014시즌 전에도 거침없는 기세를 보이며 '올해는 다르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 삼성과의 개막전에 스타팅으로 출전도 했지만 2회말 수비

에서 포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치면서 개막 하루 만에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김주형은 24일 롯데와의 시범경기에서는 1회초 상대 선발 김원중의 공에 왼쪽 옆구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단순 타박 진단이 나왔지만 가슴철렁했던 순간이

였다. 마무리 캠프를 시작으로 스프링 캠프와 시범경기까지 이어진 길고 험겨웠던 2016시즌 준비, 진짜 출발을 앞두고 '부상 조심'을 외치며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 KIA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683,433명

프로야구 역대 최대 관중 도전

지난해 736만...KIA 75만6천명 목표

한국프로야구가 역대 최대인 868만 3433명 관중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2016 정규시즌의 관중 유치 목표를 발표했다. 목표 관중은 868만3433명(경기당 평균 1만 2060명)으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인 736만530명(경기당 평균 1만223명)보다 약 18% 증가한 수다.

'한지붕 두 가족'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각각 128만명과 125만명을 목표로 해 최대 관중 1위를 노린다. 2015 한국 시리즈 챔피언 두산은 지난 시즌 112만381명을 동원하면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관중을 기록했다. LG가 105만340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75만6000명(경기당 평균 1만500)을 목표로 해 구단 역대 최대 관중수에 도전한다.

새 안방에서 출발하게 된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 역시 구단 역대 최대 목

표 관중을 잡았다. 신축된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첫 해를 보내게 된 삼성은 84만명을 목표 관중으로 내세웠고, 국내 첫 돔 야구장인 고척 스카이돔으로 동지들을 옮긴 넥센은 60만 명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80만962명의 관중을 기록한 롯데 자이언츠는 100만 관중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야구장 전광판 '빅보드'를 가동하는 SK 와이번스 역시 100만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각오다. 2016시즌 우승후보로 꼽히는 NC 다이노스는 60만48명 유치에 도전하고, 한화 이글스는 지난해와 같은 65만7385명을 목표로 했다. KBO리그 2년차인 마두 kt 위즈는 목표 관중을 70만명으로 정했다.

한편 오는 27일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KBO리그는 4월1일 오후 7시 전국 5개 구장에서 개막전을 갖고 정규시즌 일정에 돌입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홈경기 입장요금 확정

K9존 성인 1만4천원·K3존 8천원 '동결'

K7존 1만1천원·K5존 1만원 '1천원 ↑'

KIA 2016시즌 홈 경기 입장요금을 확정했다.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됐다.

내야 중앙 지정석인 K9존은 지난해와 요금이 같다. 성인 1만4000원(중고생 및 군경 1만1000원·어린이 7000원)이다. 내야 상단석이 K3존도 성인 8000원(중고생 및 군경 5000원·어린이 3000원)으로 요금이 동결됐다. 1·3루 내야 하단석인 K7존은 성인 1만1000원(중고생 및 군경 8000원·어린이 5000원), K5존은 성인 1만원(중고생 및 군경 7000원·어린이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동결됐다. 외야석도 1000원 인상돼 성인 8000원(중고생 및 군경 5000원)이다. 어린이는 200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휴일에는 각각 1000원 인상된다.

메이저리그식 프리미엄 의자로 교체된 챔피언석(4만원·휴일 5만원)과 중앙테이블 2인석(7만원·휴일 8만원) 요금은 지난해와 같다. 중앙 테이블 3인석은 5000원(주말 1만원)인상된 10만5000원(휴일 12만원)에 판매된다. 1·3루 베이스 옆 스타팅석은 2만원(휴일 2만2000원)으로 동결됐다. 파티석(4인석)과 스카이 피크닉석(4인석)은 각각 8만과 7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1·3루 가장자리에 위치한 타이거즈 가족석은 4인석과 6인석이 각각 7만원과 8만원, 외야 테이블석인 에코다이나

믹스 가족석(6인석)은 7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휴일에는 각각 1만원 인상된다.

스카이박스(10인석) 2곳(1·3루쪽 각 1곳)은 경기 단위로 50만원에 판매하며,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다.

65세 이상 경로 우대지(증명서 소지자) 및 1~3급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미취학 아동 등은 매진시를 제외하고 매표소에서 무료 입장권을 받아 외야석에 입장할 수 있다. 1~3급 장애인인 장애인 지정석을 70% 할인된 4000원(휴일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4~6급 장애인, 경로우대자는 테이블석과 특별석을 제외한 좌석의 입장료 50%를 할인받는다. 누리 카드로는 일반석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패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는 관람객은 1000원을 할인받는다. 카드사 제휴를 통한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반석에 한해 현대카드와 KJ광주카드사는 2500원, 롯데카드사는 2000원, 신한카드사는 1000원을 할인해 준다.

한편 4월 5일 광주 개막전(LG전) 입장권은 29일 오전 11시 예매가 시작된다. 예매는 인터넷 티켓링크(<http://sports.ticketlink.co.kr>) 사이트나 전화(1588-7890)를 이용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극전사, 레바논전 새 유니폼 입고 뛰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레바논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을 치렀다.

대한축구협회와 나이키는 대표선수들이 태극전사의 자긍심을 이어가도록 '태극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새로운 홈·원정 유니폼을 공개했다. 태극전사들은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새 유니폼을 착용했다.

이번 유니폼 디자인은 대표팀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홈 유니폼은 대표팀의 상징색인 붉은색을 상·하의에 모두 적용했다. 상의에는 수평으로 뻗은 역동적인 줄무늬가 들어가고, 파란색의 굵은 줄무늬가 유니폼 측면에 배치돼 '태극 무늬'를 완성했다.

원정 유니폼은 흰색 상·하의를 제작했다. 홈 유니폼에는 파란색 양말을, 원정 유니폼에는 빨간색 양말을 착용하도록 했다. 나이키는 "상의 앞면엔 메쉬 소재를 적용해 선수들의 땀 배출을 도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게 했다"며 "소재 구성과 기능성, 통기성, 친환경성을 아우르는 모든 기술을 효과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월드컵축구 대표팀 유니폼 변천사

1954	1986	1990	1994	1998
1 스위스월드컵	멕시코월드컵	이탈리아월드컵	미국월드컵	프랑스월드컵
2 3승2무2패(4강, 4위)	1무2패(조별리그 탈락)	3패(조별리그 탈락)	2무1패(조별리그 탈락)	1무2패(조별리그 탈락)
3 ?	위크엔드	리미도	리미도	나이키
4				
2002	2006	2010	2014	2018
1 한일월드컵	독일월드컵	남아공월드컵	브라질월드컵	러시아월드컵
2 3승2무2패(4강, 4위)	1승1무1패(조별리그 탈락)	1승1무2패(16강)	1무2패(조별리그 탈락)	1무2패(조별리그 탈락)
3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4				

자료/ 대한축구협회, 나이키

K리그 클래식 승격을 향하여

내일 챌린지 개막... 10월 30일까지 팀당 40경기 44R

클래식 무대를 향한 11개 구단의 경쟁이 시작된다.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가 26일 막이 오른다. 기암구단 최초로 강동의 손맛을 본 부산 아이파크를 비롯한 대전 시티즌, 대구 FC, 강원 FC, 경남 FC 등이 클래식 복귀를 노린다. 서울 이랜드, 안산 무궁화FC, 충주 험멜, 고양자이프로 FC, FC 안양, 부천 FC에게는 꿈의 무대를 향한 대장정이다.

K리그 챌린지는 2013년 출범한 프로축구 2부리그로 1위 팀은 클래식으로 자동 승격한다. 2~4위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리를 결정, 클래식 11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격에 도전하게 된다.

지난 시즌에는 상주 상무가 챌린지 1위를 찍으며 클래식으로 직행했고, 대구를 극적으로 제압하고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권을 따냈던 수원 FC도 부산까지 격파하고 클래식 입성에 성공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2016 K리그 챌린지는 10월30일까지 팀당 40경기씩 총 44라운드 치러진다. 승격플레이오프는 11월 2일부터 진행된다. 순위 결정방식은 클래식과 동일하게 승점이 같을 경우 다득점을 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챌린지 우승팀은 우승 트로피, 상금 1억원과 함께 K리그 클래식 승격의 영예를 얻는다.

개막날인 26일 '우승후보' 부산은 안산과 안방에서 챌린지리그에서의 첫 경기를 치르고, 1시즌 만에 챌린지로 돌아온 대전은 대구와 안방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경남도 홈에서 강원과 시즌 첫 승을 놓고 다툰다. 27일에는 고양과 안양(고양종합운동장), 서울 이랜드와 충주(서울 주경기장)의 경기가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